

## 배드민턴 지도자의 서번트 리더십과 임파워먼트 및 운동만족의 구조관계<sup>†</sup>

이미숙<sup>1</sup> · 남정훈<sup>2</sup>

<sup>1</sup>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학과 · <sup>2</sup>한국체육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접수 2012년 2월 29일, 수정 2012년 3월 12일, 게재확정 2012년 3월 19일

### 요 약

이 연구는 셀프리더십을 매개로 배드민턴 지도자의 서번트 리더십과 임파워먼트 및 운동만족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유의표집법을 이용하여 전국의 배드민턴 선수들을 대상으로 총343부의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에 이용하였다. SPSS18.0과 AMOS 18.0을 이용한 기술통계분석과 탐색 및 확인적 요인분석, 그리고 신뢰도분석을 통하여 자료의 정규분포와 각 요인들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연구목적에 따른 각 요인들의 관계는 상관분석과 구조모형분석을 적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배드민턴 지도자의 서번트 리더십은 임파워먼트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배드민턴 지도자의 서번트 리더십은 셀프리더십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배드민턴 지도자의 서번트 리더십은 운동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임파워먼트는 운동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셀프리더십은 운동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서번트 리더십과 운동만족의 관계에 대하여 임파워먼트와 셀프리더십은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용어: 배드민턴 지도자, 서번트 리더십, 운동만족, 임파워먼트.

### 1. 서론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에서 우승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나 우수선수들의 경기력과 관련된 심리적 파위를 규명한 연구 (김성훈 등, 2010; 김수연과 강길현, 2010; 박지민과 신현구, 2009; 성낙광, 2011)에서는 우수선수들일수록 자신의 훈련이나 생활에 대하여 자기 주도적 사고를 가지고 자신과의 싸움을 보다 적극적 자세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주도적 사고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기평가를 바탕으로 자기교정, 자기통제 및 자기강화의 인지적 사고로 형성되는 자발적 행동전략 (김슬예 등, 2011; Neck과 Houghton, 2006)으로 자신의 생활 전반에 대한 주체의식을 가지게 한다. 자기 주도적 사고의 가치와 효능을 규명한 연구에 의하면 자기 주도적 사고는 개인의 자기조절능력 (손복영과 양옥승, 2011), 학업의 성취도 (소연희, 2011), 자기효능감 (주동범과 전운순, 2011), 태도 (김수연과 강길현, 2010; 김슬예 등, 2011) 및 몰입 (김영민, 2011; 장태원과 홍아정, 2011)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sup>†</sup> 이 논문은 2010년 정부 (교육과학기술부)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0-413-G00007).

<sup>1</sup> (138-763)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1239 (오륜동),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학과, 교수.

<sup>2</sup> 교신저자: (138-763)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1239 (오륜동), 한국체육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E-mail: n7j7h7@empal.com

최근 선수들의 자기 주도적 사고의 개념으로 셀프리더십이 제시되고 있다 (김민정과 조광민, 2011; 박영민 등, 2011; Manz과 Neck, 2004). 셀프리더십은 스스로가 자신의 행위나 내면적 심리상태에 대한 철저한 자기관찰과 자기비평을 통해 개인의 목표설정 및 자기교정을 유발하는 인지 및 행동전략이다 (Anderson과 Prussia, 1997; Houghton과 Neck, 2002). 그리고 기존의 리더십들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셀프리더십은 자율적 사고 및 결정을 통해 자신의 인지 및 행동을 주도적으로 통제하는 리더십이다. 따라서 셀프리더십의 특성을 근거로 선수들의 경기력에 대한 셀프리더십의 기여도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 (김민정과 조광민, 2011; 조병섭, 2011)들이 진행되었으며 연구결과 셀프리더십은 경기력과 학습능력을 결정하는 결정요인임이 밝혀졌다. 또한 셀프리더십은 경기력과 학습능력 외에도 선수들의 심리적 파워인 임파워먼트 (이호선과 권명은, 2007)와 운동만족 (이충훈 등, 2006; 신승엽, 2007)의 형성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파워먼트는 자신에 삶과 직무에 대한 긍정적 사고와 적극적 충만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전반적 과정이다 (이미숙 등, 2012; 양필석, 2008; Conger와 Kanungo, 1988; Thomas와 Velthous, 1990; Spreitzer, 1995). 따라서 임파워먼트는 주변환경에 대한 긍정적 인지를 형성하여 선수들로 하여금 경기와 훈련 및 선수생활 전반에 대한 긍정적 정서 (성시백 등, 2011)와 운동만족 (김수연과 강길현, 2010)의 형성을 촉진한다. 지금까지 선수들의 셀프리더십과 임파워먼트 및 만족의 관계를 고찰한 결과 셀프리더십은 선수들의 긍정적 심리상태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의 요인들은 모두 선수들의 내면적 심리요인으로서 선수들에 대한 외적 상황의 자극에 따라 이들의 강도와 성향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셀프리더십이 선수들의 임파워먼트와 만족의 강도를 결정한다 하더라도 셀프리더십 역시 외적 상황의 자극에 따라 수준과 성향이 결정된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본다면 셀프리더십은 선수들의 외적 자극과 임파워먼트 및 만족의 관계에 대한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선수들의 셀프리더십과 임파워먼트 및 운동만족의 형성기전을 규명한 연구 (김수연과 강길현, 2010; 성낙광, 2011; 성시백 등, 2011; 장덕선 등, 2011; 장명 등, 2011)에 의하면 지도자의 리더십이 이들 요인들을 형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지도자의 리더십 중 서번트 리더십이 이들 요인들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낙광, 2011). 서번트 리더십은 기존의 리더십과는 다른 개념으로 리더와 팀 구성원들의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정의하며 리더의 역할을 팀 구성원들의 자아실현을 위한 조력자로 정의한다 (Russell과 Stone, 2002). 그러나 기존의 지도자들과 선수들의 관계는 스포츠의 특성상 상명하복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스포츠 분야에서의 지도자와 선수 관계에 의한 최근의 연구 (성한국, 2011; 최마리와 김병준, 2011)들에 의하면 지도자와 선수관계는 상호보완적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선수들의 경기력향상과 진로선택을 위해 지도자는 안내자 및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근거로 서번트 리더십의 가치와 역할을 규명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서번트 리더십은 선수들의 셀프리더십 (김민정과 조광민, 2011)과 임파워먼트 (김수연과 강길현, 2010; 김창우, 이상돈, 2011; 성시백 등, 2011) 및 운동만족 (김민정과 조광민, 2010)에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선행연구의 고찰연구를 통해 선수들의 셀프리더십과 임파워먼트 및 운동만족 등의 내면적 심리요인에 대한 서번트 리더십의 긍정적 기여도를 확인하였으나 통합적 관점에서 서번트 리더십의 가치와 역할을 규명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선수들의 심리요인이 상호 연관적이라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통합적 연구관점에서 서번트 리더십의 가치와 역할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배드민턴은 한국에서 대중적 스포츠이며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까지 획득한 총 메달수의 10%를 차지하여 국가브랜드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배드민턴이 세계적으로 배드민턴 강국으로 거듭나게 된 배경에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지만 무엇보다 배드민턴 지도자의 지도역량이 중요하다. 훌륭한 선수 뒤에는 뛰어난 지도역량을 갖춘 지도자가 있음을 많은 스포츠 사례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국 배드민턴 지도자의 지도역량에 관한 연구들은 한국 배드민턴의 국제

적 위상에 비해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배드민턴 지도자와 선수를 대상으로 통합적 관점에서 셀프리더십을 매개로 한 배드민턴 지도자의 서번트 리더십과 임파워먼트 및 운동만족의 구조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드민턴 지도자의 서번트 리더십은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배드민턴 지도자의 서번트 리더십은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배드민턴 지도자의 서번트 리더십은 운동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임파워먼트는 운동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섯째, ‘셀프리더십은 운동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섯째 ‘서번트 리더십과 운동만족의 관계에 대하여 임파워먼트와 셀프리더십은 간접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배드민턴 지도자의 지도역량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준거자료가 될 것이며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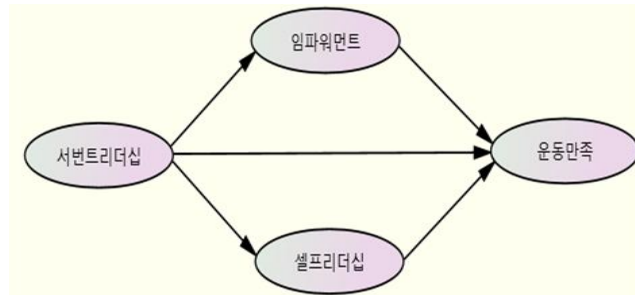


그림 1.1 연구모형

## 2. 연구방법

### 2.1.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유의표집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전국의 배드민턴 선수들을 모집단으로 설정한 후 2012년 1월 대한배드민턴협회에 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선수들이 소속되어 있는 서울, 인천, 대전, 전주, 화순, 대구, 부산, 울산 지역의 배드민턴 팀을 연구자 외 3명이 직접 방문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자 외 3명 입회하에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현장에서 작성여부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불성실하게 작성된 자료 없이 343부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의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1과 같다.

표 2.1 연구대상자 특성

	구분	빈도 (n)	백분율 (%)
성	남자	194	56.5
	여자	149	43.5
소속	중학교	59	17.2
	고등학교	112	32.8
	대학교	97	28.4
	일반	75	21.6
경력	1-3년이하	116	33.8
	4-6년이하	128	37.2
	7-9년이하	54	15.7
	10년이상	45	13.3

## 2.2. 조사도구

### 2.2.1. 서번트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은 나순복과 이천희 (2011)가 타당도 검증을 통해 재구성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경청, 설득, 비전제시, 구성원성장, 공동체의식 등 5요인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아주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수집된 자료의 기술통계분석결과 정규분포성을 위배한 문항 (2번, 4번, 10번, 15번, 19번, 22번, 28번, 30번, 32번)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요인 구조를 탐색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 (최대우도법, 오블리민)을 실시한 결과 판별타당도를 위배한 문항 (24번, 16번, 18번, 3번)과 요인 적재값이 .40이하로 나타난 문항 (1번)을 제외한 4요인 19문항으로 재구성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후 요인구조에 대한 적합도를 검토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최초모형적합도가  $\chi^2=838.511$ ,  $df=146$ ,  $p=.000$ , Q값=5.741, RMR=.042, GFI=.812, CFI=.801, TLI=.762, RMSEA=.110로 나타나 모형적합도가 적합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현석과 하정철, 2011). 따라서 수정지수(MI) 근거로 모형수정을 실시하여 문항 (6번, 8번, 9번, 12번, 21번)이 삭제되었다. 모형수정 후 모형적합도는  $\chi^2=246.741$ ,  $df=84$ ,  $p=.000$ , Q값=2.931, RMR=.031, GFI=.914, CFI=.921, TLI=.903, RMSEA=.072로 모형적합기준을 충족 (강민석 등, 2011)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서번트 리더십은 최종 4요인 15문항으로 결정되었다.

표 2.2 서번트 리더십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문항	서번트 리더십				$\alpha$
	설득	비전제시	구성성장	공동의식	
서버7	.802	.135	.265	.063	.873
서버11	.733	.114	.114	.246	
서버8	.722	.171	.354	.015	
서버6	.663	.3024	.203	.222	
서버12	.654	.344	.218	.151	
서버5	.561	.344	.227	.071	.838
서버9	.470	.336	.305	-.062	
서버21	.220	.820	-.059	.152	
서버20	.267	.730	.048	.273	
서버14	.193	.698	.327	.023	
서버13	.184	.661	.246	.091	.816
서버17	.205	.649	.362	.053	
서버26	.212	.184	.761	.185	
서버25	.189	.254	.708	.124	
서버27	.378	.145	.699	.141	
서버23	.390	.088	.655	.023	.717
서버31	.140	.154	.041	.794	
서버29	.114	.322	.030	.774	
서버33	.094	-.059	.277	.724	
전체	7.660	1.743	1.482	1.091	
분산 (%)	40.317	9.175	7.800	5.744	
누적 (%)	40.317	49.492	57.291	63.035	

### 2.2.2.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지는 Prussia 등 (1998)의 셀프리더십 검사지를 양필석 (2008)이 한국 상황에 적합하도록 구성타당도 검증과정을 거쳐 재구성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행동

지향적 전략, 자연적 보상, 건설적 사고전략 3요인 20문항 및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정규분포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정규분포성을 위배하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구조를 탐색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최대우도, 오블리민)을 실시한 결과 공통성이 .40이하로 나타난 문항(5번, 9번, 11번)과 두 요인에서 요인 적재값이 .40이상으로 나타나 판별타당도를 위배한 문항(4번, 8번, 10번)을 제외한 3요인 14문항으로 재구성되었다.

표 2.3 셀프리더십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문항	셀프리더십			$\alpha$
	행동지향	건설적사고	자연보상	
셀프6	.747	.121	.225	.826
셀프1	.738	.247	.116	
셀프2	.707	.298	.125	
셀프3	.705	.293	.142	
셀프7	.616	.197	.334	
셀프19	.197	.695	.187	.760
셀프18	.194	.682	.183	
셀프20	.147	.664	.186	
셀프17	.264	.621	.294	
셀프16	.318	.603	-.031	
셀프15	.183	-.009	.802	.748
셀프14	.057	.218	.705	
셀프13	.277	.355	.616	
셀프12	.341	.294	.614	
전체	5.647	1.233	1.083	
분산 (%)	40.332	8.809	7.732	
누적 (%)	40.332	49.141	56.874	

탐색적 요인분석 후 요인구조에 대한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chi^2=251.555$ ,  $df=74$ ,  $p=.000$ ,  $Q값=3.399$ ,  $RMR=.023$ ,  $GFI=.871$ ,  $CFI=.862$ ,  $TLI=.874$ ,  $RMSEA=.091$ 로 나타나 모형적합도가 적합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정지수(MI) 근거로 모형수정을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문항(6번)이 삭제되었다. 모형수정 후 모형적합도는  $\chi^2=185.697$ ,  $df=62$ ,  $p=.000$ ,  $Q값=2.995$ ,  $RMR=.024$ ,  $GFI=.929$ ,  $CFI=.919$ ,  $TLI=.901$ ,  $RMSEA=.076$ 로 모형적합기준을 충족(강민석 등, 2011)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셀프리더십은 최종 3요인 13문항으로 나타났다.

### 2.2.3. 임파워먼트

임파워먼트는 최태원(2008)이 Speitzer(1995)의 임파워먼트 검사지를 바탕으로 한국 상황에 적합하도록 구성타당도 검증을 통하여 재구성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4요인 16문항 및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아주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수집된 자료의 정규분포성을 확인한 결과 문항(8번, 9번, 11번)이 나타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요인구조를 탐색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최대우도법, 오블리민)을 실시한 결과 4요인 13문항으로 재구성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후 요인 구조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chi^2=330.657$ ,  $df=97$ ,  $p=.000$ ,  $Q값=3.408$ ,  $RMR=.069$ ,  $GFI=.879$ ,  $CFI=.893$ ,  $TLI=.858$ ,  $RMSEA=.101$ 로 나타나 모형적합도가 적합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아 수정지수(MI)를 근거로 모형수정을 실시하여 문항(3번, 13번)이 삭제되었다(강민석 등, 2011). 모형수정 후 모형적합도는  $\chi^2=167.231$ ,  $df=83$ ,  $p=.000$ ,  $Q값=2.014$ ,

RMR=.061, GFI=.920, CFI=.935, TLI=.905, RMSEA=.082로 모형적합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셀프리더십은 최종 4요인 11문항으로 나타났다.

표 2.4 임파워먼트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문항	임파워먼트				$\alpha$
	영향력	자기결정	과업의미	역할수행	
임파16	.942	.122	.071	.123	.902
임파15	.932	.129	.041	.158	
임파14	.831	.188	-.118	.222	
임파13	.690	.136	.395	-.057	
임파2	.174	.894	-.057	.054	.845
임파3	.132	.842	.177	-.188	
임파1	-.007	.834	-.132	.215	
임파4	.350	.634	.144	.112	
임파12	.125	-.042	.784	.190	.652
임파10	.020	.134	.752	.209	
임파5	.174	.196	.119	.824	.702
임파7	.293	.081	.315	.713	
임파6	-.041	-.216	.387	.487	
전체	4.531	2.274	1.681	.939	
분산 (%)	34.851	17.492	12.931	7.224	
누적 (%)	34.851	52.343	65.274	72.497	

#### 2.2.4. 운동만족

표 2.5 운동만족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문항	운동만족			$\alpha$
	외부환경	사회적응인	선수생활	
만족4	.792	.083	-.216	.787
만족3	.714	-.033	.099	
만족2	.694	-.131	.182	
만족5	.665	.003	-.113	
만족14	.084	.768	.188	
만족15	.109	-.764	-.126	.754
만족13	-.036	.755	.089	.628
만족8	.159	.179	.812	
만족9	-.193	.208	.773	
전체	2.325	2.057	1.024	
분산 (%)	25.836	22.851	11.381	
누적 (%)	25.836	48.687	60.068	

운동만족 검사지는 송춘현과 이계윤 (2000)이 Hackman과 Oldman (1976)의 운동만족 검사지를 바탕으로 한국 상황에 적합하도록 타당도 검증을 통하여 재구성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조성찬 (2012)의 연구를 통해 검사지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으며 3요인 15문항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아주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수집된 자료의 정규분포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통계분석결과 정규분포성을 위배한 문항 (7번, 11번)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요인의 구조를 탐색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최대우도법, 오블리민)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공통성이 .40이하로 나타난 문항 (10번, 12번)과 판별타당도를 위배한 문항 (1번, 6번)을 제외한 3요인 9문항으로 재구성되었다. 요인구조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chi^2=37.100$ ,  $df=18$ ,  $p=.000$ ,

Q값=2.0061, RMR=.051, GFI=.973, CFI=.944, TLI=.901, RMSEA=.081로 모형적합기준을 충족 (강민석 등, 2011) 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운동만족은 최종 3요인 9문항으로 나타났다.

### 2.3.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서번트 리더십과 셀프리더십, 임파워먼트 및 운동만족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정규분포성과 각 검사지의 요인구조 및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18.0과 AMOS 18.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 신뢰도 분석, 탐색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추출된 요인들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SPSS 18.0을 이용한 상관관계분석 및 AMOS 18.0을 이용한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상관분석

표 3.1 요인 간의 상관관계

	A	B	C	D	E	F	G	H	I	J	K	L	M
A	1												
B	.546**	1											
C	.608**	.540**	1										
D	.354**	.366**	.329**	1									
E	.042	.002	.034	.082	1								
F	.254*	.299**	.095	.051	.616**	1							
G	.246**	.159*	.171*	.021	.541**	.543**	1						
H	.199**	.158**	.295**	.249**	.041	.025	.093	1					
I	.472**	.152**	.377**	.020	.157*	.119*	.004	.364**	1				
J	.307*	.285**	.167**	.425**	.045	.157**	.043	.174**	.079	1			
K	.462**	.415**	.374**	.339**	.151*	.418**	.065	.292**	.155**	.475**	1		
L	.023	.052	.066	.079	.243*	.231*	.060	.158**	.004	.081	.077	1	
M	.169**	.211**	.120*	.077	.002	.168*	.119*	.070	.146**	.142**	.217**	.126*	1
N	.219**	.230**	.151*	.018	.018	.343*	.114*	.264**	.343**	.260**	.269**	.096	.252**

\*p<.05, \*\*p<.01

(A)설득, (B)비전제시, (C)구성원성장, (D)공동체의식, (E)행동지향성, (F)건설적 사고, (G)자연적보상, (H)영향력, (I)자기결정력, (J)과업의미성, (K)역할수행력, (L)외부환경만족, (M)사회적 승인, (N)선수생활만족

각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서번트 리더십의 설득과 비전제시 및 구성원 성장은 외부환경만족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동체 의식은 영향력과 과업의 의미성 및 역할수행력에게만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셀프리더십의 행동지향성은 자기결정력과 자연적 보상, 자기결정력 및 역할수행력에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셀프리더십은 건설적 사고는 영향력을 제외한 모든 요인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파워먼트의 영향력은 사회적 승인을 제외한 요인들에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결정력과 과업의 의미성은 만족의 사회적 승인과 선수생활만족에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2. 서번트 리더십과 셀프리더십, 임파워먼트 및 운동만족 관계에 대한 구조모형분석

배드민턴 선수들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을 매개로 서번트 리더십과 임파워먼트 및 운동만족의 연구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chi^2$ , RMSEA, RMR, GFI, TLI, CFI, NFI 등의 모형적합지수를 이용하여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대한 모형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연구모형의

최초 모형적합도는 모형적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미정과 이지연, 2011; 최현석 등, 2011). 따라서 모형적합도를 모형적합기준에 충족시키기 위해 모형수정을 실시하였다. 모형수정은 수정지수 (MI)가 높고 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가 .40이하로 나타나 적합도를 저해시키는 자기결정력 측정변수를 삭제하였다 (김석우, 2010; 배병렬, 2007; 송지준, 2008). 모형 수정 후 모형적합지수를 확인한 결과 모형적합도는 표 3.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적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구조모형의 적합도

최초모형					
Chi-Square = 4.34 (df=71, p=.000)					
GFI	CFI	NFI	TLI	RMR	
.886	.817	.778	.806	.030	
수정모형					
Chi-Square = 2.981 (df=59, p=.000)					
GFI	CFI	NFI	TLI	RMR	
.930	.902	.897	.902	.023	

모형 수정 후 적합기준을 충족하는 연구모형을 이용하여 각 요인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3.2와 같다.

배드민턴 지도자의 서번트 리더십과 임파워먼트의 관계에서는 경로계수 값이  $\beta=.517$  ( $t=6.837$ ,  $p<.001$ )로 나타나 서번트 리더십이 임파워먼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배드민턴 지도자의 서번트 리더십은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첫 번째 연구문제는 채택되었다.

서번트 리더십과 셀프리더십의 관계에서는 경로계수 값이  $\beta=.527$  ( $t=5.798$ ,  $p<.001$ )로 나타나 서번트 리더십이 셀프리더십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배드민턴 지도자의 서번트 리더십은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두 번째 연구문제는 채택되었다.

서번트 리더십과 운동만족의 관계에서는 경로계수 값이  $\beta=.287$  ( $t=3.180$ ,  $p<.01$ )로 나타나 서번트 리더십이 운동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배드민턴 지도자의 서번트 리더십은 운동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세 번째 연구문제는 채택되었다.

임파워먼트와 운동만족의 관계에서는 경로계수 값이  $\beta=.837$  ( $t=4.410$ ,  $p<.001$ )로 나타나 임파워먼트는 운동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파워먼트는 운동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네 번째 연구문제는 채택되었다.

셀프리더십과 운동만족의 관계에서는 경로계수 값이  $\beta=.277$  ( $t=2.333$ ,  $p<.01$ )로 나타나 셀프리더십은 운동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셀프리더십은 운동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다섯 번째 연구문제는 채택되었다.

표 3.3 가설검증 결과

경로	계수	t	가설
서번트리더십→임파워먼트	.517	6.837***	채택
서번트리더십→셀프리더십	.527	5.798***	채택
서번트리더십→운동만족	.287	3.180***	채택
임파워먼트→운동만족	.837	4.410***	채택
셀프리더십→운동만족	.277	2.333***	채택

\*\*  $p<.01$ , \*\*\* $p<.001$



## 3.3. 서번트 리더십과 셀프리더십, 임파워먼트 및 운동만족 인과관계분석

표 3.4 인과효과분석 (표준화계수)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서번트리더십→임파워먼트	.517*	-	.517*
서번트리더십→셀프리더십	.527*	-	.627*
서번트리더십→운동만족	.288**	.578*	.866*
임파워먼트→운동만족	.837**	-	.837*
셀프리더십→운동만족	.277**	-	.277*

\* p&lt;.05, \*\* p&lt;.01

서번트 리더십과 운동만족의 관계에 대한 임파워먼트와 셀프리더십의 간접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모형분석의 인과관계분석과 아로이안 검증분석 (Aroian-test)을 실시하였다. 우선 서번트 리더십과 운동만족의 관계에 대한 임파워먼트와 셀프리더십의 간접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모형분석의 인과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 3.3에서 나타난 것처럼 서번트 리더십은 임파워먼트 ( $\beta=.517, p<.05$ )와 셀프리더십 ( $\beta=.527, p<.05$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만족에 대한 서번트 리더십 ( $\beta=.288, p<.01$ )과 임파워먼트 ( $\beta=.837, p<.05$ ) 및 셀프리더십 ( $\beta=.277, p<.05$ )의 직접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번트 리더십과 운동만족의 관계에 대하여 임파워먼트와 셀프리더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간접효과 ( $\beta=.578, p<.05$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을 근거로 구조모형분석을 통한 간접효과를 도출한 결과 서번트 리더십과 운동만족에 대하여 임파워먼트 및 셀프리더십의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구체적으로 간접효과에 대한 임파워먼트와 셀프리더십의 기여도를 세부적으로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접효과에 대한 임파워먼트와 셀프리더십의 기여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아로이안 검증분석 (Aroian-test)을 적용하였다. 아로이안 검증 (Aroian-test)분석을 통해서 각각의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간의 영향 (a)과 매개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영향 (b)의 곱 (ab)에 대한  $Z_{ab}$  값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산출된  $Z_{ab}$  값이 유의수준.05의 수준인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은지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Baron과 Kenny, 1986). 확인결과 표 3.4.에서 나타난 것처럼  $Z_{ab}$  값은 유의수준.05이하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임파워먼트와 셀프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과 운동만족과의 관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번트 리더십과 운동만족의 관계에 대하여 임파워먼트와 셀프리더십은 간접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여섯째 연구문제는 채택되었다.

표 3.5 간접효과 검증

경로	Z
서번트리더십→임파워먼트→운동만족	2.471
서번트리더십→셀프리더십→운동만족	2.127

$$Z_{ab} = \frac{ab}{\sqrt{SE^2 a SE^2 b + b^2 SE^2 + a^2 SE^2 b}}$$

a (비표준화계수) : 독립변수 → 매개변수  
 SEa : a의 표준오차  
 b (비표준화계수) : 매개변수 → 종속변수  
 SEb : b의 표준오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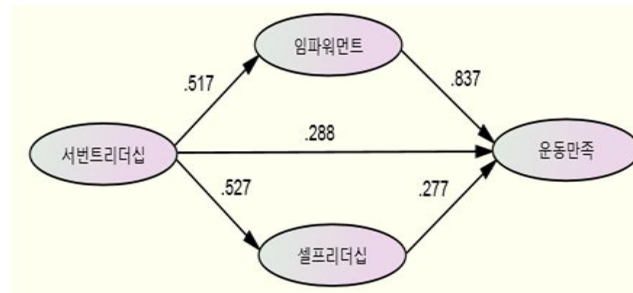


그림 3.1 요인 간 표준화 계수 추정치

#### 4. 논의

이 연구는 배드민턴의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배드민턴 지도자의 지도역량을 규명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현실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최근 배드민턴 지도자와 운동선수들의 효과적인 리더십으로 소개 (성시백 등, 2011; 최마리와 김병준, 2011)된 서번트 리더십과 선수들의 동기적 행동성향인 셀프리더십, 임파워먼트 및 운동만족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각 요인간의 관계는 서번트 리더십과 셀프리더십, 임파워먼트 및 운동만족의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각 요인간의 상호관련성을 근거로 연구모형을 설정한 후 이들 요인간의 관계를 구조모형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배드민턴 지도자의 서번트 리더십은 임파워먼트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도자의 서번트 리더십이 선수들의 임파워먼트의 형성을 촉진한다고 보고한 성시백 등 (2011)의 연구와 김수연과 강길현 (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이들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본다면 중목적 특성과는 상관없이 지도자의 서번트 리더십이 선수들의 임파워먼트의 형성을 촉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리더십과 정서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 (강영순과 양덕순, 2007)와 서번트 리더십이 다른 리더십과는 달리 지도자와 선수들의 수평적 관계를 중시하고 선수들의 발전을 배려한다는 점, 그리고 임파워먼트가 자신의 직무에 대한 긍정적 느낌과 충만감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전반적 과정 (Conger와 Kanungo, 1988)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한다면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배드민턴 지도자의 서번트 리더십이 선수생활 전반에 긍정적 자기 인식을 형성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본다면 배드민턴 선수들의 자발적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으로 서번트 리더십을 고려할 수 가 있다.

둘째, 배드민턴 지도자의 서번트 리더십과 셀프리더십의 관계에서는 서번트 리더십이 셀프리더십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김민정과 조광민 (2010; 201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셀프리더십은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변화시켜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리더십 (Manz, 1986)으로 셀프리더십은 현재 및 미래에 대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주도적 위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점은 서번트 리더십에서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이다. 서번트 리더십에서는 지도자를 구성원들이 개개인의 자아실현과 가치실현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조력자로서 정의 (정선미와 김강식, 2008; Spears, 1995)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구성원들의 자결적 성향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그러므로 서번트 리더십의 지도역량을 갖춘 배드민턴 지도자의 선수들이 셀프리더십을 갖게 되거나 셀프리더십의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셋째, 서번트 리더십과 운동만족의 관계에서는 서번트 리더십이 운동만족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번트 리더십과 구성원의 만족 관계를 규명한 연구 (김대오, 2009; 안대

영 등, 2008; 윤대균과 장병주, 2006; Greenleaf, 1997)와 동일한 결과이다. 서번트 리더십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른 리더십 보다 구성원들의 긍정적 정서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성택, 2009; 조우정, 2007). Greenleaf (1997)은 서번트 리더십은 리더의 독자적인 관점과 사고를 중시하는 다른 리더십에 비해 리더에 대한 구성원들의 긍정적 정서를 형성하여 보다 더 높은 팀의 성과를 촉진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점이 서번트 리더십의 가치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는 서번트 리더십은 운동에 대한 선수들의 만족감을 촉진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서번트 리더십의 긍정적 정서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넷째, 임파워먼트와 운동만족의 관계에서는 임파워먼트가 운동만족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운동만족에 대한 임파워먼트의 긍정적 기여도를 지지하는 한편 김수연과 강길현 (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김수연과 강길현 (2010)의 연구에서도 태권도 선수들의 임파워먼트가 선수들의 만족감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수들이 아닌 일반인의 임파워먼트와 만족감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 (이광용과 정지명, 2010; 이동준과 이흥구, 2010; 임현철과 서광열, 2011)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임파워먼트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으로 인지된 사고 또는 정서로부터 행동에 이르는 유기적 과정이다. 그러므로 임파워먼트가 긍정적 인지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긍정적 인지과정의 결과물인 만족에 대하여 임파워먼트가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다섯째, 셀프리더십과 운동만족의 관계에서는 셀프리더십이 운동만족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민정과 조강민 (2010)의 결과와 Heather와 Roseanne (198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게 나타난 결과이다. 이들의 연구에서도 셀프리더십은 선수들의 만족감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셀프리더십이 자신 및 주변상황에 대한 건설적 사고의 형성을 촉진한다는 셀프리더십의 기능 (Manz와 Neck, 2004) 고려한다면 당연한 결과이다. 즉 셀프리더십은 선수들의 주과제인 운동에 대한 건설적 사고를 형성할 것이며 형성된 운동에 대한 건설적 사고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 즉 운동에 대한 만족감을 촉진한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여섯째, 서번트 리더십과 운동만족의 관계에 대한 셀프리더십과 임파워먼트의 간접효과는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셀프리더십과 임파워먼트가 서번트 리더십과 운동만족의 관계에 대하여 매개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서번트 리더십과 만족과의 관계를 규명한 김수연과 강길현 (2010) 및 김민정과 조광민 (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셀프리더십과 임파워먼트가 선수들의 운동만족에 대한 서번트 리더십의 기여도를 촉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서번트 리더십은 선수들에게 자신과 주변상황에 대한 긍정적 인지 과정인 임파워먼트를 유발하여 건설적 사고를 형성시키고 형성된 건설적 사고는 긍정적 정서반응인 운동만족을 형성하는 것이다. 또한 서번트 리더십은 선수들의 자결성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배드민턴에 수행에 대한 자기목표설정과 자기보상 및 자기평가 등, 자발적 인지전략 수립을 촉진하여 배드민턴 수행력에 대한 자기만족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즉 서번트 리더십은 선수들에게 배드민턴 운동 전반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여 자신의 수행력에 대한 만족을 느끼도록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서번트 리더십이 선수들의 긍정적이고 적극적 사고를 형성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지금까지 배드민턴 지도자의 서번트 리더십과 임파워먼트, 셀프리더십 및 운동만족의 관계를 검증하였으며 검증한 결과 서번트 리더십은 지도자의 리더역량을 높일 수 있는 지도방법임을 확인하였다. 지도자의 리더역량에 관한 연구 (김규성과 김명연, 2000; 노명화, 2010)들은 팀 구성원의 적극적 사고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리더가 리더역량이 우수한 리더라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팀 구성원들이 적극적이고 강인한 사고와 행동력을 만드는 리더일수록 팀의 수행력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본 연구의 결과를 고찰해 보면 서번트 리더십이 지도자의 지도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전략적 방안임을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볼 때 세계 속의 배드민

턴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한국 배드민턴의 파워는 바로 배드민턴 지도자들의 지도역량에서 비롯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 5. 결론

배드민턴 지도자의 서번트 리더십과 임파워먼트, 셀프리더십 및 운동만족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드민턴 지도자의 서번트 리더십은 임파워먼트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배드민턴 지도자의 서번트 리더십은 셀프리더십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배드민턴 지도자의 서번트 리더십은 운동만족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임파워먼트는 운동만족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셀프리더십은 운동만족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서번트 리더십과 운동만족의 관계에 대하여 임파워먼트와 셀프리더십은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문헌

- 강민석, 최현석, 박병춘 (2011). 환경경영이 경영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22**, 523-536.
- 강영순, 양덕순 (2007). 리더십 유형, 정서적 반응, 혁신 행동간의 구조적 관계. <경영사학>, **45**, 5-29.
- 김규성, 김명언 (2000). 연구개발팀 리더역량과 조직특성이 수행성공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128-129.
- 김대오 (2009). <고등학교 태권도 지도자의 서번트 리더십이 선수만족 및 운동몰입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서울.
- 김민정, 조광민 (2010). 셀프리더십을 매개로 한 태권도 지도자의 서번트 리더십이 운동만족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9**, 223-234.
- 김민정, 조광민 (2011). 태권도 지도자의 서번트 리더십이 선수성공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3**, 215-226.
- 김석우 (2010). <SPSS · AMOS 활용의 실제>, 학지사, 서울.
- 김성훈, 노갑택, 신경택 (2010). 태권도 선수들의 정신력 개념 구조 파악. <대한무도학회지>, **12**, 35-47.
- 김수연, 강길현 (2010). 대학 태권도 선수들이 지각한 태권도 코치의 서번트 리더십에 따른 임파워먼트와 선수만족의 관계. <대한무도학회지>, **12**, 157-169.
- 김슬예, 이재범, 김용국 (2011). 초등학생들의 해동검도 수련몰입이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무도학회지>, **13**, 125-139.
- 김영민 (2011). e-Learning 유통물류교육에서 자기주도학습 및 학습몰입이 학습 성과에 미치는 영향. <e-비즈니스연구>, **22**, 27-47.
- 김창우, 이상돈 (2011). 상업 스포츠 센터 직장상사의 서번트 리더십과 임파워먼트 및 조직유효성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6**, 197-205.
- 나순복, 이천희 (2011). 태권도 지도자의 서번트 리더십이 관계의 질 및 리더동일시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5**, 35-45.
- 노명화 (2010). 리더역량과 팀갈등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대회 논문집>, **29**, 87-97.
- 박영민, 김한별, 남정훈 (2011). 골프선수의 셀프리더십과 신체적 자기효능감 및 운동몰입의 관계.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0**, 541-555.
- 박지민, 신현구 (2009).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임파워먼트의 필요성 인식. <한국체육학회 학술발표회>, **37**, 10-23.
- 배병렬 (2007). <AMOS 7에 의한 구조방정식모델링>, 청람, 서울.
- 성낙광 (2011). 체조지도자의 리더십 유형이 체조선수의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3**, 313-326.
- 성시백, 김관규, 윤용진 (2011). 쇼트트랙 지도자의 서번트 리더십과 임파워먼트 및 스포츠 정서의 관계.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2**, 97-111.
- 성한국 (2011). <배드민턴 지도자-선수관계, 자결성 및 정서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서울.
- 소연희 (2011). 학습자가 지각한 교사의 수업활동, 자기주도학습, 학습몰입 및 학업성취의 구조적인 관계분석. <아동교육>, **20**, 19-32.

- 손복영, 양옥승 (2011). 자기주도 학습방법에 의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이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1**, 227-249.
- 송문섭, 윤영주 (2001). 데이터 마이닝 패키지에서 변수 선택 편의에 관한 연구. <응용통계연구>, **14**, 475-486.
- 송미정, 이지연 (2011).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대구시티투어 관광객의 만족도 연구.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2**, 1075-1087.
- 송지준 (2008). <SPSS/AMOS 통계분석방법>, 21세기사, 서울.
- 송춘현, 이계운 (2000). 고등학교 운동선수의 선수생활 만족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교육학회지>, **5**, 193-200.
- 신승엽 (2007). 사격선수가 지각하는 지도자의 변혁적 리더십이 임파워먼트 및 운동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리서치>, **18**, 219-230.
- 안대영, 배태영, 정홍삼 (2008). 서번트 리더십이 상관에 대한 만족에 미치는 영향. <정부학연구>, **14**, 163-187.
- 양필석 (2008). <핵심자기평가가 조직유형성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울산.
- 윤대균, 장병주 (2006). 호텔기업의 서번트 리더십이 리더만족과 추가적 노력에 미치는 영향. <마케팅과학연구>, **16**, 107-123.
- 이광용, 정지명 (2010). 프로스포츠구단 중사자들의 직급에 따른 임파워먼트 유형별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구조관계에 관한 연구. <여가웰니스학회지>, **2**, 11-20.
- 이동준, 이홍구 (2010). 스포츠센터 경영자의 리더십과 임파워먼트 및 직무만족의 구조모형 검증.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9**, 103-114.
- 이미숙, 김홍기, 남정훈 (2012). 배드민턴 지도자-선수관계로 예측한 임파워먼트 및 동기.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3**, 1-12.
- 이호선, 권명은 (2007). 임파워먼트와 조직유효성 관계에 셀프리더십이 미치는 조절효과. <HRD연구>, **9**, 1-18.
- 이충훈, 이기욱, 허경아 (2006). 개인 및 단체 종목 운동선수들이 지각하는 스포츠 지도자의 리더십과 임파워먼트, 운동만족도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한국스포츠리서치>, **17**, 25-33.
- 임성택 (2009). 서번트 리더십이 팔로우의 태도를 통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호텔경영학연구>, **18**, 225-237.
- 임현철, 서광열 (2011). 호텔직원의 조직후원인식, 임파워먼트,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관광연구>, **25**, 159-174.
- 장덕선, 이인화, 허정훈 (2011). 스포츠 지도자 리더유형이 임파워먼트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2**, 11-26.
- 장명, 김지태, 강현욱 (2011). 태권도 지도자의 변혁적, 거래적 리더십과 선수만족, 운동몰입 및 운동지속의도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6**, 807-818.
- 장태원, 홍아정 (2011). 조직구성원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이 흡수능력과 정서적 몰입 및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 <지식경영연구>, **12**, 17-34.
- 조병섭 (2011). 중·고등학교 골프선수의 셀프리더십이 운동몰입 및 경기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6**, 833-842.
- 조성찬 (2012). <사이클 지도자의 변혁적 리더십이 운동만족 및 운동몰입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수원.
- 조우정 (2007). 휘트니스클럽 매니저의 서번트 리더십이 서비스 지향성 및 서비스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50**, 34-45.
- 주동범, 전운순, (2011).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경험 및 자기주도 학습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직업교육연구>, **30**, 15-28.
- 최마리, 김병준 (2011). 스포츠 지도자와 선수의 행동부합에 관한 개념모형 제안. <한국체육학회지>, **50**, 45-56.
- 최현석, 이영선, 하정철 (2011).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취업스트레스가 취업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2**, 313-322.
- 최현석, 하정철 (2011).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 유발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2**, 437-448.
- 최태원 (2008). 프로축구 지도자의 리더십유형이 임파워먼트와 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4**, 481-490.
- Anderson, J. S. and Prussia, G. E. (1997). The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Preliminary assessment of construct validity. *The Journal of Leadership Studies*, **4**, 119-143.
- Baron, R. M. and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7.
- Conger, J. A. and Kanungo, R. N. (1998). The empowerment process: Integrating theory and practi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 471-482.
- Greenleaf, R. K. (1977). *Servant leadership: A journey into the nature of legitimate power and greatness*, Paulist Press, New York.
- Hackman, J. R. and Oldman, G. R. (1976). Motivation through the design of work: Test of a theory.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16**, 250-279.
- Heather, E. R. and Roseanne, J. F. (1989). Evaluating the interaction between self-leadership and work

- structure in predicting job satisfaction. *Journal of Business and Psychological*, **12**, 257-267.
- Houghton, J. D. and Neck, C. P. (2002).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Testing a hierarchical factor structure for self-leadership.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17**, 672-691.
- Manz, C. C. (1986). Self-leadership: Toward an expanded theory of self-influence processes in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1**, 585-600.
- Manz, C. C. and Neck, C. P. (2004). *Mastering self-leadership: Empowering yourself for personal excellence*, Pearson/Prentice-Hall, Upper Saddle River, NJ.
- Neck, C. P. and Houghton, J. D. (2006). Two decades of self-leadership theory and research.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21**, 270-295.
- Prussia, G., Anderson, J. S. and Manz, C. C. (1998). Self-leadership and performance outcomes: The mediating influence of self-efficacy.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9**, 523-538.
- Russell, R. F. and Stone, A. G. (2002). A review of servant leadership attributes: Developing a practical model. *Leadership and Organization Development Journal*, **23**, 135-145.
- Spreitzer, G. M. (1995). Psychological empowerment in the workplace : Dimension, measurement and valid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3**, 31-39.
- Thomas, K. W. and Velthouse, B. A. (1990). Cognitive elements of empowerment : An interpretive model of intrinsic task motiv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5**, 666-681.

#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ervant leadership, empowerment and sports satisfaction of badminton coaches<sup>†</sup>

Mi Sook Lee<sup>1</sup> · Jung Hoon Nam<sup>2</sup>

<sup>1</sup>Division of Community Sport,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sup>2</sup>Sport Science Institute,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Received 29 February 2012, revised 12 March 2012, accepted 19 March 2012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relationship among servant leadership, empowerment and sports satisfaction of badminton coaches by self-leadership. Among national badminton players, total 343 copies of data were collected and used at the study by using of random sampling. The normal distribution on data and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for each factors were proven to confirm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exploratory &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with SPSS 18.0 and AMOS 18.0 program. The relationship among each factors by the purpose of study were analyzed by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model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servant leadership of badminton coaches had positive effect on empowerment. Second, the servant leadership of badminton coaches had positive effect on self-leadership. Third, the servant leadership of badminton coaches had positive effect on sports satisfaction. Fourth, empowerment had positive effect on sports satisfaction. Fifth, self-leadership had positive effect on sports satisfaction. Sixth,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servant leadership and sports satisfaction, empowerment and self-leadership had indirect effects.

*Keywords:* Badminton coaches, empowerment, self-leadership, servant leadership, sports satisfaction

---

<sup>†</sup>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0-413-G00007).

<sup>1</sup> Professor, Division of Community Sport,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Seoul 138-763, Korea.

<sup>2</sup> Corresponding author: Research professor, Sport Science Institute,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Seoul 138-763, Korea. E-mail: n7j7h7@empal.com